

2017년 3월 31일, 조천읍 신촌리 동동노인정, 강수경 조사.

박원림(남, 1935년생, 조천읍 신촌리)

- 줄거리: 옛날에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작업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는 일이 많았다. 신촌리 사람이 배를 타고 육지 갔다 오는데 뒤에서 배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며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선장에게 배를 멈추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쫓아온다고 하였다. 선장은 경험이 많아서 그거 불잡으면 안 된다고 그 귀신이 배에 위탁하면서 그냥 지나쳤다.

[제보자] 저 배에서 바당에 어부덜 고기 낚으레, 고근대 갓당 옛날은 뭐뭐, 브름, 파도 세
문 그냥 많이 죽었주게. 베 엎어정. 견디 바당에도 사름덜이 많이 죽으니깐이.
바당에서 죽은 귀신이 살아나젠 막 죽어갈 때 어디 으지허젠크, 손 잡을 땠 으지허
당 보믄 이제 배나 넘어값인가 헹 아메도. 게믄.

제방이 아바지 산 때 제방이 아바지도 배 탕 거 어디 육지 간 오단에, 막 조름에
서 사름이 그냥 베만 심젠크 막 허우작거리멍 쫓아와라 이거라. 겐
“베 멈춰라, 멈춰라.”

헤네 그 저 물에 빠진 사름 있다고 거 산 사름인 중 알안. 게난 이제 배 선장신디
배를 멈청, 저 저디 사름, 물에 빠진 사름 막 쫓아왔던 허난, 선장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깐이 그거 그거 저 불잡으면 안 된다고, 그 귀신이 배에 위탁해연 안 된다고.}
경 헤네 그런 걸 훈 둘 번 봐나고렌. 제방이 아방이 그런 말 골아낫어.

[청중] 아이고, 바당에서 죽은 어른이 오죽 하꽈.

[제보자] 나 으라번 뺏주.

- 핵심어 : 바당, 선장, 죽은 영혼, 배, 어부